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57-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주요 5개국 지도자 호감도 조사(2023년 10월)

2023. 11. 22.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주요 5개국 지도자 호감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 주변국 지도자 중 가장 높아 일본 기시다 총리 호감도 지난 4월 대비 2.5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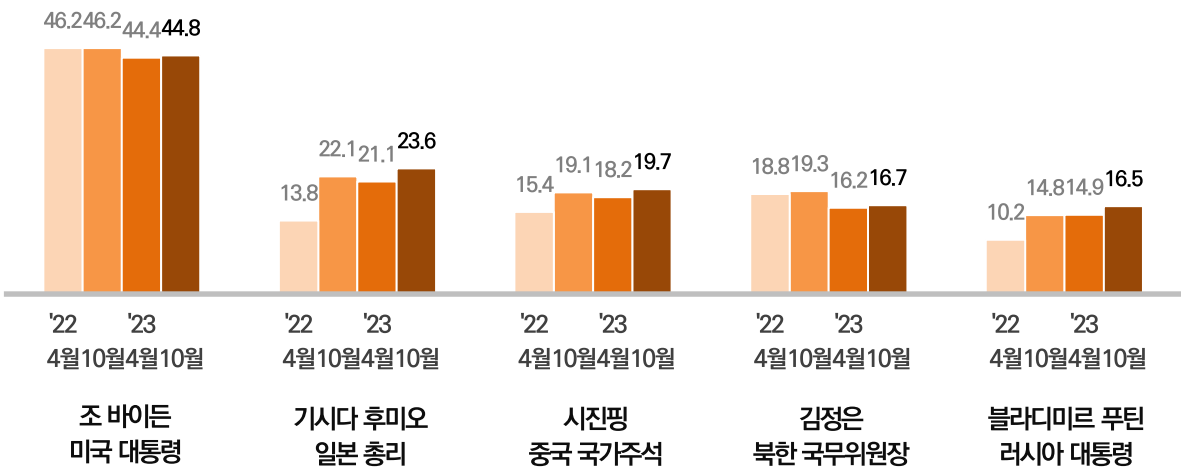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에서는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5개 국가(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미국 호감도가 주변 5개국 중 가장 높은 가운데 일본의 호감도가 30도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호감도는 30도를 밑돌아 낮은 수준이다.

국가 호감도를 묻는 것과 동일한 감정온도 방식(0도 ~ 100도, 0에 가까울수록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에 가까울수록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호감도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호감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44.8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23.6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19.7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16.7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16.5도) 순으로 높다. 바이든 대통령의 호감도는 지난 4월과 큰 변동 없이 주변 5개국 지도자 중 가장 높은 호감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호감도는 지난 4월보다 2.5도 상승했으나 23.6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시진핑 국가주석, 김정은 국무위원장, 푸틴 대통령의 호감도는 20도를 넘지 못해 호감도가 매우 낮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호감도, 지난 해 10월 대비 1.4도 하락했으나 주변국 지도자 중 가장 높아
바이든 대통령 제외 4개국 지도자의 호감도는 10~20도로 낮은 수준에서 횡보

(단위 : 도)



질문: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4. 22 ~ 25 // 2022. 10. 28 ~ 31 // 2023. 4. 21 ~ 24 // 2023. 10. 27 ~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60세 이상, 보수층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 보통 이상 18-29세에서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 호감도는 10도 미만으로 매우 낮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여성(41.7도)보다는 남성(48.1도)이 더 높고, 60세 이상(53.9도) 및 보수층(52.9도)에서는 보통 이상의 높은 호감도를 갖고 있다. 기시다 총리 호감도 또한 60세 이상(30.5도)과 보수층(30.2도)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시진핑 주석, 김정은 국무위원장, 푸틴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전 연령대에 걸쳐 낮은 수준이나,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호감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18-29세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8.0도), 김정은 국무위원장(9.0도), 푸틴 대통령(9.7도)에 대한 호감도가 모두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어, 호감도가 극도로 낮다.

한편, [지난 4월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가 낮은 것이 확인된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8.9도(고졸 이하 24.5도, 대학 재학 이상 15.6도)로 가장 크고, 바이든 대통령(7.4도, 고졸 이하 48.8도, 대학 재학 이상 41.4도), 푸틴 대통령(6.0도, 고졸 이하 19.7도, 대학 재학 이상 13.7도)의 호감도 차이도 큰 편이다.

60세 이상, 보수층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 보통 이상 18-29세에서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 호감도는 10도 미만으로 매우 낮아

(단위 : 도)

	사례수 (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전체	(1,000)	44.8	23.6	19.7	16.7	16.5
성별						
남자	(495)	48.1	25.3	20.1	16.4	17.8
여자	(505)	41.7	21.9	19.4	16.9	15.1
연령						
18-29세	(162)	42.2	20.2	8.0	9.0	9.7
30대	(149)	39.4	18.2	12.6	12.6	10.3
40대	(180)	36.6	17.6	16.6	14.3	14.8
50대	(195)	44.2	24.8	26.1	23.0	21.7
60세 이상	(314)	53.9	30.5	27.1	20.0	20.6
학력						
고졸 이하	(465)	48.8	26.7	24.5	19.7	19.7
대재 이상	(535)	41.4	20.8	15.6	14.1	13.7
이념성향						
진보층	(254)	40.7	19.4	23.1	20.8	16.8
중도층	(380)	42.4	22.2	19.6	15.8	16.0
보수층	(304)	52.9	30.2	18.1	15.2	17.1
없음/모름	(62)	36.9	16.1	14.7	12.6	14.5

질문: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3. 10. 27 ~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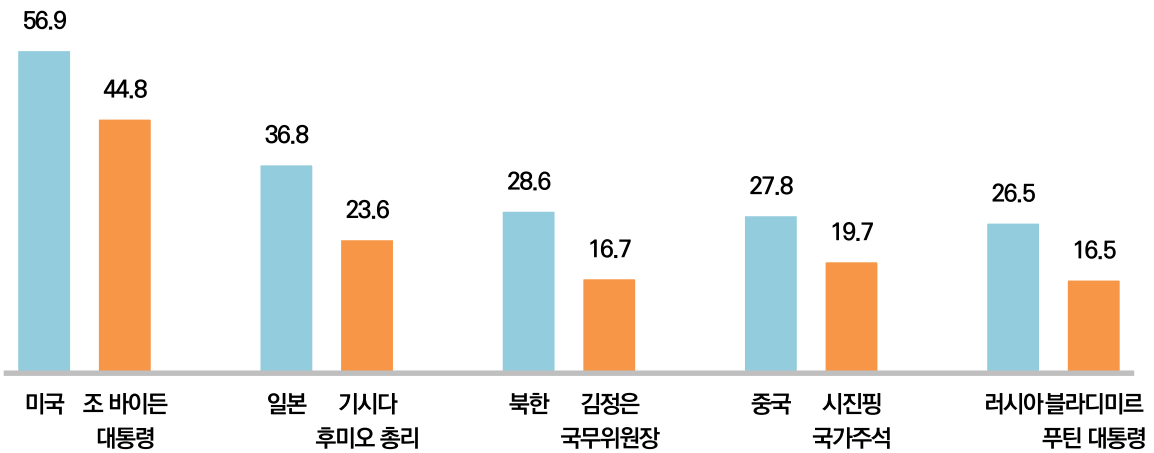
각국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가 국가 호감도보다 낮아 일본 호감도와 기시다 총리 호감도는 13.2도 차이

지난 10월 초 진행했던 국가별 호감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5개국 모두 국가에 대한 호감도보다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가 더 낮다. 이러한 경향은 각국 지도자 호감도 조사를 처음 시작한 지난 해 4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하는 기준과 국가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둘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10월 조사에서 미국 호감도는 56.9도로 보통 이상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는 이보다 12.1도 낮은 44.8도에 머물렀다. 기시다 총리의 호감도(23.6도)는 일본 호감도(36.8도)보다 13.2도 낮아, 그 격차가 가장 컸다. 북한(국가 호감도 28.6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호감도 16.7도), 중국(국가호감도 27.8도, 시진핑 주석 호감도 19.7도), 러시아(국가호감도 26.5도, 푸틴 대통령 호감도 16.5도) 또한 국가에 대한 호감도와 국가지도자에 대한 호감도가 10도 혹은 그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각국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가 국가 호감도보다 낮아
일본 호감도는 36.8도, 기시다 총리 호감도 23.6도로 13.2도 차이 보여

(단위 : 도)



질문: (한반도 주변국 /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주변국 호감도 - 2023. 10.13~16 //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 2023. 10. 27 ~ 3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3년 10월 기준 약 89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516명, 조사참여 1,39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5.3%, 참여대비 71.6%)
조사일시	• 2023년 10월 27일 ~ 10월 30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 Research

